

▶ 슈퍼컴퓨터의 본격 가동으로 국내 기초과학·공공분야·응용분야 및 관련산업분야의 기술수준을 모두 한단계이상 높힐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수퍼컴퓨터 CRAY-2S가동식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에서 구랍 6일 이상희 과기처장관, 전학제 과기원장을 비롯한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슈퍼컴퓨터 가동식을 가졌다

국내에 처음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공학센터에 설치된 美크레이 리서치사의 CRAY-2S/128 슈퍼컴퓨터는 앞으로 국내의 최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선도에 그 기여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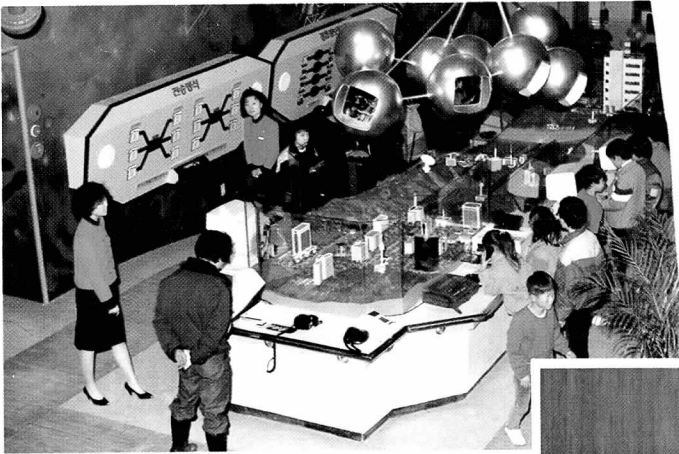


崔永喆 장관



申允植 차관

구랍 5일 정부의 내각 개편에 따라 체신부 장관에 崔永喆, 차관에 申允植 前기획실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 「전기통신홍보관」은 미취학아동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에 맞게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다.

▼ 박승수 초대회장이 李膺孝 데이터콤 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전화의 원리를 알아보고 있다.



「電氣通信홍보관」 구립 20일 개관

첨단 통신기기를 조작하며 배울 수 있는 「전기통신홍보관」이 구립 20일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교양관에 개관되었다.

총 11억 5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이 홍보관은 역사관, 열쇠관, 지식관, 응용관, 미래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단순히 보고 느끼기만 하는 일반 전시장과는 달리 전시품들을 관람객이

직접 조작해 보고 실제 체험을 통해 전기통신에 대한 모든 것을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홍보관은 현재 하루 2~3 천명의 어린이가 관람객이 찾고 있다.

「홈이아 (HOMEA)」 창립총회 개최

구립 17일 한국데이터통신 빌딩 2층에서 홈이아(HOMEA) 창립총회가

열렸다.

「홈이아」는 홈 컴퓨터피아의 준말로 과거처와 데이터통신이 정보통신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강남구와 용산구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중인 국민생활 정보망 이용자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 이용상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의 이름이다.